



분단극복 위한 視角조정 朴淳敬교수의 「민족통일과 기독교」

— 시인 高靜熙

지금 독서중

高靜熙(39세)씨에게는 시인이라는 명칭 외에 또 하나가 있다. 다름아닌 여성법률상담소

출판부장. 따라서 개인적인 문학활동을 위한 독서 이외에도, 여성문제를 올바른 목소리로 전해 줄 좋은 책을 만들어내는 일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요사이 그가 관심있게 읽고 있는 책은 朴淳敬교수(이대 기독교학과)의 「민족통일과 기독교」(1986년 한길사刊).

朴淳敬교수는 대학시절 자신의 恩師로, 조직신학 분야에서 칼 바르트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다가 여성신학으로 학문의 방향을 전환한 분이라고 高靜熙씨는 말한다. 분단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한국 신학의 문제점을 관찰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특히 여성신학의 과제로 삼고자 하는 것이 朴교수의 논점이라는 것. 따라서 우선 우리 기독교의 문제를 세계문제와 연결시켜 철저히 비판하는데서 출발한다. 「민족통일과 기독교」 머리말에서 朴교수는 「철저한 기독교 비판을 위해서는 기독교가 전승해온 진리를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가 민족통일의 길에 있어서 대체로 저해조건이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없이 민족통일은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민족분단은 세계 분단의 일환이며 세계 기독교는 세계 분단의 요인들 근처에 있는 정신적 계기이지만, 세계 기독교의 참여없이 세계분단은 극복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기독교 문화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그 핵심부분에 날카롭게 해부를 가하고 있는 朴교수의 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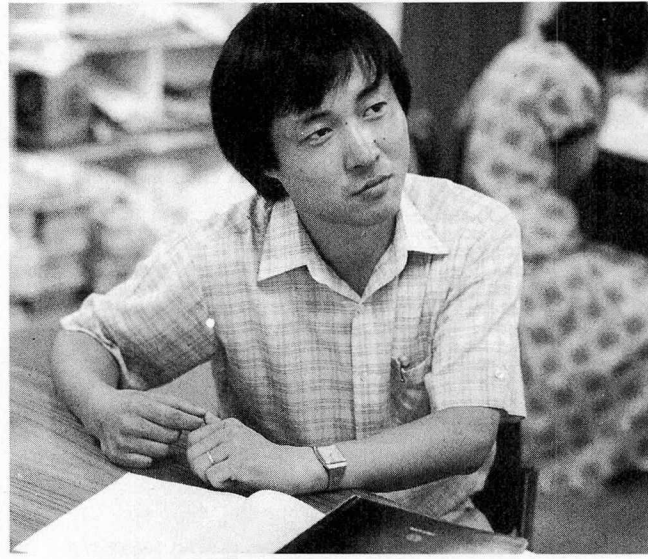
高靜熙씨는 지적한다.

『우리의 기독교는 토착종교들과 접목되면서 본래의 정신으로부터 변형된 면들이 많습니다. 우선 무속신앙의 영향으로 성령일변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유교의 보수성, 불교의 祈禱性도 영향을 주었지요. 또한 기독교의 전래도 서구 식민팽창주의, 자유주의, 경제주의에 편승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배자의 목소리가 더 컸다고 하겠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걸어온 사회적 과정과 연결하여 기독교를 비판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의 창출을 여성신학의 과제로 삼고 있는 朴교수님의 시각은 종교인 특히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해줍니다』

이 책에서 朴교수는 민족사적 맥락에서 「민족의 어머니」 「역사의 어머니」라는 어머니 모델을 택한다. 여기에서 어머니 모델이란 출산의 母像을 이상화시킨 것도, 여성다움의 像도 아니다. 새로운 민족의 미래와 인간성의 성취는 기존의 남성지배의식과 구조에 의해서 창출될 수 없으므로 어머니모델이 채택된 것이라고 朴교수는 밝히고 있다.

『여성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성신학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벽은 바로 여성자신이라는 말이 있지요. 朴교수님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여성운동은 지배의식과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성, 평등과 평화, 義가 지배하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高靜熙씨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시각,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현장체험에 바탕두고 씌어진 일선教師들의 「삶을 위한 문학교육」

— 貞信女高교사 張東燦씨

지금 독서중

『3년 이상이나 별 생각없이 자습서나 뒤적이던 '열 명의 국어교사들이 울bum 초중고 국어교과서

내용을 전면 재검토한 책을 한권 펴냈다. 「삶을 위한 문학교육」(문학교육연구회/연구사刊)이 그 책.

— 저의 작은아버님이 장관이셔요. 어디를 가면 쌀 한 가마가 없겠어요? 하지만 긴긴 인생에 이런 일도 있어야 늙어서 애깃거리가 되잖아요.

고 교과서에 실린 金素雲의 수필 「가난한 날의 행복」을 두고 이들은 「여기 등장하는 가난이 과연 진짜가난이냐」고 문제삼았다. 「가난 속에 빛나던 사랑만은 잊지 말아야겠다」는 결론에 감동하기 전에 「고구마의 디저트로 홍차를 마신」 이 이야기가 진짜가난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허영에서 나온 장식적 가난」인지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이 대목을 읽으면 학생들이 먼저 웃어요. 가난이 뭔지 그들이 더 잘 아는 것이죠』

편자들과 같은 국어교사라는 입장에서 이 책을 관심있게 읽었다는 張東燦(31·서울貞信女高)씨는, 이 책에 담긴 비판이 몇몇 교사들의 주관적 판단만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때로는 학생들이 현실인식에서 교사들보다도 앞질러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기존 국어책에 대한 이런 비판적 논의는 시인 申庚林, 소설가 朴泰海씨 등에 의해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전개됐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현장 밖에서 「정계의 위험 없이」

산발적으로 거론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내부로부터 현장체험에 바탕을 두고 씌어진 문학교육론은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동료교사들이 우스갯소리로 자습서가 하나 더 생겼다고들 그래요』

자신들도 평소 의식해왔던 문제점들을 본격적으로 거론한 터라 『우리는 왜 진작 이런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는가』 후회가 들 정도라는 張교사의 소감이다.

우리말로 우리문학을 가르치고 배운지 4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일선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문학교육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게 필자들의 주장. 추상적인 교육목표야 있지만 그 개념해석을 특정집단이 독점하는 폐해가 따르고 편파적인 내용 선정, 字句풀이에만 매달리는 형식주의적 수업지침, 「국책전달」의 요구와 입시부담 등이 문학교육을 과탄에 몰아넣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국어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바뀌어야 해요. 교사와 학생들이 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편찬과정에도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합니다』

50년대 일본에서는 교과서 연구·제정을 위한 교사들의 소모임이 셀 수 없이 생겨났다고 張교사는 부러워한다.

『이 책의 내용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공식화된 용어의 반복이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석등은 토론할 여지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교사들이 진작 해야 할 일의 첫 출발을 끊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무력감·타성에서 벗어날 계기를 던져줬다는 것. 언젠가 답답한 교육실정을 푸념했다가 오히려 제자들로부터 위로의 말을 받았을 때 느꼈던 것과 비슷한 체적질의 느낌을 받노라고 그는 덧붙인다.